

21세기의 밀리언셀러



출판전문지 <기획회의> 통권 200호 간행을 기념하여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펴낸 『21세기 한국인은 무슨 책을 읽었나』는 새천년 첫 7년간의 베스트셀러 200종을 담았다. “교보문고의 협조를 얻어 연도별 베스트셀러 자료 중 상위 35위 안에 든 책을 모두 포함하되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의 판매규모를 확인한 후 200선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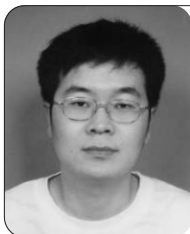
21세기의 베스트셀러 200종을 한국문학, 외국문학, 경제경영서, 비소설, 인문·과학·예술, 어린이책·학습만화, 실용서 등 일곱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각 분야마다 관련 전문가가 베스트셀러의 흐름을 분석한 글을 실

었다. 베스트셀러 200종에 대한 해제는 “현장 중심, 이슈 중심인 잡지의 성격”에 걸맞게 대부분 책을 펴낸 출판사 관계자들이 맡았다. 일부는 <기획회의> 편집부에서 썼다.

또한 베스트셀러 200선과는 별도로 ‘21세기에 등장한 밀리언셀러 60종’을 추렸다. “출판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전에 없이 많은 밀리언셀러가 등장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의 발행인은 밀리언셀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출판 내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숙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0년의 밀리언셀러

새천년의 첫해 네 권의 밀리언셀러가 나왔다. 조창인의 『가시고기』(밝은세상), 정찬용의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영절하』라 줄임) (사회평론), 로버트 기요사키와 샤론 레흐트



최성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황금가지),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권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문학수첩)이다.

『가시고기』는 슬픔을 점점 고조시키는 방법을 숙지한 작가의 잘 짜여진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아들의 병과 아버지의 병은 슬픔의 큰 축을 이룬다. 두 개의 축 사이에 배치된 작은 슬픔들이 슬픔을 배가하는데 아들의 병실에서 먼저 죽

어나간 환자,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 아이, 장기 매매 이야기가 그것이다. 『가시고기』의 ‘최루성’은 1997년의 대형 베스트셀러 김정현의 『아버지』(문이당)보다 강하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가시고기』를 눈물에 호소하는 ‘신평’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다. 이런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에는 우리사회의 문제적 환경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IMF 사태를 야기한 사회 현실과 관련이 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몰락은 경제 불황에서 오는 구조조정과 맞물린다. 이런 점은 『가시고기』도 마찬가지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기로 들어섰다.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는 이미 붕괴했고, 산업사회의 핵가족마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자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보다는 부모의 성취와 욕망을 더 앞세운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자녀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지 않고 성장하기는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다. 이러한 상태에서 불행은 오롯이 자녀의 몫이다. 또 과도기적 상황의 반작용으로 혈육에 대한 사랑이 요구된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릴수록, 사회보장



제도가 경제 성장론에 압도돼 뒷전으로 밀릴수록 대중의 가족애에 대한 향수는 진해진다.

『영절하』는 단순학습교재가 아니라 영어공부의 패러다임을 논한 책이다. 『영절하』가 한창 고공행진을 할 무렵 저자 인터뷰를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에 비춰볼 때 쉬운 학습법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사람들이 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영어에 대한 자기비하가 심합니다.”(《출판저널》 제278

호, 2000년 4월 20일자) 그는 영어로 된 정보의 수준이 높고, 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영어를 익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영어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영어를 공부한다’는 고정관념의 타파가 선결과제다. 외국어는 공부를 통해선 습득하기 어렵고 몸으로 익혀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영어를 하나의 언어로 전제한다. 이것을 수궁하면, 『영절하』의 영어 공부법은 아주 간단해 보인다.

영어 익히기의 다섯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요령을 알려준다. 골자는 더 간단해서 귀를 ‘뚫는’ 일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 역시 번잡하지 않다. 카세트테이프 한 개면 족하다. 물론 자기 수준에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테이프에 담긴 소리가 다 들릴 때까지 반복해야 해서다. 뜻은 몰라도 된다. 이 단계에서 사전을 뒤적이는 건 금물이다. 나중에도 영한사전보다는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리포터 시리즈

2000년 2월 번역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부자 되기 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 “돈 좋아하는 걸 내색하면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허위의식을 정면에서 깬다.” 이 책은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대비를 통해 누구든 선택 여하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긴다. 가난한 아버지가 돈을 좋아하는 것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치부한다면, 부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것을 만악의 근원으로 여긴다.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피하라고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어느덧 해리포터 시리즈는 완간을 보았다. <기획회의> 편집부에서 작성한 해제는, 먼저, 해리포터 시리즈의 위상 평가에 주저하지 않는다. “‘해리포터’라는 작품에 대한 비평을 보류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해리포터는 유행을 넘어 톨킨, C.S. 루이스 그리고 조앤 K. 롤링으로 이어지는 판타지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와 책 출간에 얽힌 사연이 뒤따른다.

“원고를 완성하고도 복사비가 없어서 출판 에이전트에게 원고를 보내기 위해 타자기로 타이핑을 해야 했다”는 식의 조앤 롤링의 구차한 이력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눈물을 머금은 원고마저 12개 출판사를 전전하고 나서야 블룸스베리에 등지를 튼다. 그런데 1편의 하드커버 초판 발행부수는 얼마였을까? “놀라지 마시라. 500부였다.” 그러면, 1997년 영국 런던의 어느 서점에서 열린 조앤 롤링이 참가한 첫 낭송회에 참석한 독자의 숫자는? 단 2명이었다.

미국의 출판사 스콜라스틱이 10만 달러에

판권을 사들이면서 해리포터 시리즈는 엄청나게 팔리는 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스콜라스틱은 초판으로 10만부를 발행했고, 영국에서 『해리포터와 현자의 돌』이었던 제목을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바꾼다.” 한국어판은 원서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1999년 11월에야 선을 보였는데 그 속사정은 이렇다.

“당시 (이) 책은 해외에서 이미 초베스트셀러 행진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일곱 권(冊)으로 예정된 책의 권당 선인세가 1만 5000달러였고 총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니 위험 부담이 커 국내 우수한 출판사가 모두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탓이다. 한데 의외의 출판사가 나섰다. 하지만 어린이책을 출간해본 경험도 없고, 선인세도 부담이 되어 망설이며 초판 3000질을 발행했다.”

한국어판을 펴낸 출판사 관계자가 작성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21세기 한국인은 무슨 책을 읽었나』에 실린 해제의 맺음은 꽤 비판적이다.

“국내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는 출간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가격 상승을 위해 원서로는 한 권인 책을 국내에서 권수를 늘린다는 혐의(5권은 5권으로 4만 2500원, 6권은 4권으로 3만 2000원이나 한다)를 받아 2007년에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권으로 출간해달라는 청원 운동까지 벌였다. 오역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출간 때는 ‘독자들의 향의가 빗발치자 문학수첩이 신청한 독자들에게만 뜯어 붙이는 스티커를 보내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5편부터는 로열티를 20퍼센트나 지급해 국부 유출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21세기 밀리언셀러의 5가지 유형

“이 책을 펴내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대의 밀리언셀러는 모두 60종이다.” 「밀리언셀러를 만드는 새로운 법칙」이라는 글에선 그것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 해리포터 시리즈와 『다 빈치 코드』, 『반지의 제왕』, 『연금술사』 같은 전 지구적 ‘블록버스터 소설’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와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잘 팔렸다.

둘째, 한국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스토리 만화’다. 밀리언셀러는 1백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중의 베스트셀러다. 21세기 밀리언셀러 판매부수 추정치에서 ‘스토리 만화’의 판매량은 놀라울 정도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물경 2천만 부를 헤아린다. ‘Why’ 시리즈(850만부), 『마법 천자문』(600만부), ‘서바이벌 만화과학상식’ 시리즈(530만부), 『코믹 메이플 스토리』(500만부)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셋째, 국민계도성 프로그램, TV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매체에 힘입어 판매부수를 늘리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가 되었다.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의 ‘이 달의 책’ 선정도서는 무려 8종이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새삼 방송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느낌표> 외에도 <TV, 책을 말하다>에 소개된 『연탄길』은 300만부가 팔렸다. 미니시리즈 <내 이름은 김삼순>에 소도구로 등장한 『모모』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역시 밀리언셀러가 되었는데, 1970년대 후반 베스트셀러였던 『모모』의 화려한 부활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다. 『TV 동화 행복한 세상』, 『그 남자 그 여자』, 『스펀지』 등은 방송 프로그램을 책으로 펴내 성공한 예다.

넷째, 자기계발서는 2000년대 ‘베스트셀러의 산실’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필두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살아 있는 동안 꼭 해

야 할 49가지』, 『화』, 『설득의 심리학』,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선물』, 『마시멜로 이야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긍정의 힘』 등이 있다.

다섯째, ‘영어학습서’다. 『영절하』 외에도 토익 4총사인 『이-토익(이익훈 토익)』, 『토익 답이 보인다(토담보)』, 『토마토(토익성적 마구 올려주는 토익)』, 『해커스토익』 등은 시시때때로 영어를 모국어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혜) 영어인증시험의 교재로 정착되면서 영어시장을 석권했다.

여섯째,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국내소설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밀리언셀러가 된 국내소설은 『상도』, 『한강』, 『가시고기』, 『국화꽃 향기』 등 네 작품뿐이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훈의 장편소설 『남한산성』(학교재)이 밀리언셀러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느낌표〉 선정도서

2002년의 〈느낌표〉는 밀리언셀러 제조기나 다름없었다. 첫 방송을 탄 김중미의 『팽이부리말 아이들』(창작과비평사)부터 그랬다. 200만부가 팔린 이 책에 대한 뜨거운 호응은 당시 인터넷서점의 독자서평이 잘 말해주었다. 책이 방송에 나가고 나서 두 달간 씩어진 것이 그 이전 1년 반 동안의 것보다 열배에 이른다. 더구나 이들 독자의견은 칭찬 일색이었다. 창작과비평사(현 '창비')가 처음에는 독서캠페인 참가를 꺼렸다는 소문이 돌아 그 진위를 확인해 봤었다. 출판사 대표는 “방송사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쓴 탓에 방송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오락 프로그램이라고만 하니, 혹시라도 출판사 이미지를 해치거나 않을까 해서 망설였다. 두 권짜리 책을 한 권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도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선정도서인 공지영 장편소설 『봉순이 언니』(푸른숲)는 대형서점의 주간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교보문고의 경우 문학류 판매가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60%가 늘었다. 이전에는 베스트셀러라 해도 보통 주당 400~700부가 팔렸다. 그러나 『팽이부리말 아이들』은 방송에 소개된 후 1997년 소설 『아버지』가 세운 주간 판매기록 1,800부를 거뜰히 깨고 주당 3,700부가 팔렸다. 뒤이어 방송을 탄 『봉순이 언니』는 주당 4,500부가 판매돼 『팽이부리말 아이들』을 추월하고 새 기록을 수립했다.”(〈중앙일보〉 2002년 1월 28일자)

개인적으론 『고등어』에서 받은 실망을 『봉순이 언니』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도솔출판사)가 밀리언셀러가 된 것은 방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

다. 그 여세를 몰아 『야생초 편지』는 2002년 말 여러 언론사에 의해 ‘올해의 책’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위기철의 『아홉 살 인생』(청년사),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 전우익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현암사), 『톨스토이 단편선』(인디북),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동녘) 등은 〈느낌표〉 선정도서가 되기에 앞서 독자의 검증 받은 책들이다. 신간을 영향력이 막강한 국민독서 캠페인 도서로 선정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널리 읽히는 책을 고른 것에선 안정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심리가 읽힌다. 그리고 ‘덜달아 따라 읽기’는 ‘무작정 따라 짚기’보다는 덜해도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㉞

